



#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 3분 묵상

### 새로운 날

김영문 브루노 신부

새해 첫날 한적한 곳에서  
 겨울나무와 시린 하늘과  
 떠오르는 해를 보며  
 지나온 발자국을 되새겨 보리라

멀리 아득하게 들려오는 세상 소리들  
 다정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사랑과 희망의 책갈피를 꽃고  
 깊이 한숨으로 기도하리라

오르는 길은 올라가고  
 넘어야 할 고개는 넘어가며  
 내려가는 길은 빈 마음으로 내려가리라

새해는  
 혼자 순례지 성당을 찾아  
 구석진 자리에서 보는 사랑의 감실등  
 뜨겁고 붉은 품에 깊이 잠겨 보리라

##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01/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45,580

현재 참가 인원 -100명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마음을 사로잡는 뛰어난 설교가 요한 크리소스토모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공경하고 싶습니까? 그분이 헐벗고 있는 것을 볼 때 멀리하지 마십시오. 비단 옷을 차려 입으신 그리스도를 이곳 성전에서 공경하면서 바깥 추위 속에서 헐벗고 고통 당하시는 주님을 못 본 체하지 마십시오. 제대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제대보가 아닌 깨끗한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그리스도는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누구를 공경할 때 그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공경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고, 그가 원하는 대로의 공경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마태오 복음 강해』 중)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언자적 힘이 넘치는 설교로 금(金)으로 된 입(口), 곧 ‘골드문트(Goldmund)’라는 뜻의 「크리소스토모(Chrysostomus)」라는 별명을 지닌 요한 크리소스토모(344/354?~407)는 동방 교회 4대 교부 중 하나이며, 안티오키아 학파 중 가장 뛰어난 교부로 꼽힌다. ‘금구(金口)’라는 말처럼 설교자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하다.

안티오키아는 4세기 당시 교회적으로 다소 복잡한 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비신자들이 수적으로 우세하였고, 이들은 행정과 학원들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다. 또 주교들 대다수는 아리우스 이단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가톨릭 교회는 바울리노 주교와 멜레시오 주교가 주도하는 두 세력으로 갈라져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출생한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안투사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세속적 출세를 위해 공부하고 향락적인 생활을 했던 요한은 그러한 삶에 염증을 느끼고, 후에 다르소 주교가 된 테오도르와 함께 성서 연구와 수덕 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371년 멜레시오 주교로부터 독서직을 받은 그는, 평소 갈망하던 수도 생활을 위해 4년간 광야에서 은수 생활을 하였고, 이후에는 아예 2년 동안 동굴에 들어가 고행과

성독으로 일관하는 시간을 보냈다. 건강 약화와 어머니 안투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안티오키아에 돌아온 그는 381년 부제품을 받았으며, 386년에는 사제로 서품되었다. 398년 테오필로로부터 주교품을 받고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로 임명된 후에는 부패한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화려한 생활을 질타하며 개혁을 시도했고, 신자들에게는 윤리적 쇄신을 강조했다. 또한 황실의 허례허식을 비난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여러 구호 사업을 시작했으며, 성직 매매를 한 여섯 명의 주교를 면직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행보는 결국 황실과 반대파의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요한은 여러 차례 유배를 떠나야 했다. 결국 407년 흑해 극동 쪽 피티우스로 유배를 가던 중 숨을 거두었는데, 죽으면서 남긴 말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영광 받으소서!”였다.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활동적인 삶과 관상 생활을 하나로 일치시키려 노력한 인물이었다. 그는 평신도들도 복음에 따라 살아갈 것을 권유했고, 성서 읽기에 몰두할 것을 요청했다. 거의 700편에 이를 만큼 구약과 신약에 관한 설교를 남겼던 그는 특히 바오로 서간집을 애독했다. 바오로 서간집은 그의 성서 인용에서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이었으며, 실제로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바오로 서간집을 주해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성서를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여기지 않았고, 수도자들보다도 평신도들이 더 성서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면 성서를 손에 드시오. 지속적인 도움을 성서에서 얻고자 한다면 들은 것을 되새기시오. 다른 스승을 찾지 마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처럼 여러분을 교육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가 남긴 저서는 안티오키아 학파에 속한 학자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그중 총 여섯 권으로 된 『사제직』(De sacerdotio)은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대표적 저서로 꼽히며, 우아한 문장과 숭고한 신학 사상으로 오늘날



까지 고전으로 읽히고 있다. 그 외에도 수도 생활에 관한 『테오도로에게 권고』, 『진정한 참회』 등이 있으며, 236편의 서간도 전해진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저서 대부분은 미뉴(J. P. Migne)의 교부 전집에 18권 분량으로 전해오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 명성 때문이 아니라 그 신학적 가치가 높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저서들은 당시 교회의 정치·사회·문화에 대한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며, 서방 교회의 아우구스티노와 비교될 만하다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신자들의 실생활에 깊은 관심을 둔 사목자였다. 자신의 수행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소외된 이들의 비참한 삶에 함께 할 줄 알았으며, 그들 편에서 서서 성찬의 의미를 사회 정의와 사랑의 근본으로 해석한 교부였다. 연설가로서 뛰어난 재능을 지녔던 그는 그 수사학적 재능을 복음화와 하느님 백성에 대한 봉사에 사용했으며,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말할 줄 아는 능력으로 신자들을 신앙으로 감동시킨 믿음의 교육자였다. 그는 교육자들과 부모들에게 그 역할의 존귀함을 설명하면서 “교육이란 인간 존재를 다듬어 내는 예술 중의 예술”이라고 했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강조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표현을 남겼다. 「성체성사의 박사」라는 칭호를 얻기도 한 그는,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을 강조한 학자이기도 하다.

## 공지 사항

### 1 미사 일정 안내

겨울방학을 맞아 1/4(주일) 오전 11:30 미사 및 주일학교 없습니다.

### 2 견진 성사 안내

2026/5/31(주일)에 견진성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연결된 필수 성사입니다.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으신 모든 신자들은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 2026/01/25까지

### 3 시노드 리더 교육

- 일시: 1/11(주일) 오후 1시
  - 장소: 101호 교리실
  - 대상: 시노드 각 소그룹 리더, 서기, 부서기
  - 내용: 시노드 진행방법과 리더 역할, 서기/부서기 역할
- 각 소그룹 리더와 서기, 부서기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5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7/1/2025 - 8/31/2026
- 대상: 전신자

### 6 울뜨레아 월례 모임

- 일시: 1/10(토) 오전 11:00
  - 장소: 101호 교리실
- 2026년 첫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꾸르실리타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7 2027 세계 청년대회(WYD)신청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전 세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더욱 깊이하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석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참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자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에 한하여 최종 신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관심자 신청서 마감일: 2026년 2월 1일
- 신청서 파일 및 기타 문의: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 입당송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서**..... 이사 60,1-6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2독서**..... 에페 3,2,3ㄴ,5-6

〈지금온 그리스도의 신비가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 알렐루야

**복음**..... 마태 2,1-12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12/28)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3명	63명	232명	-	49명	387명

성가 안내      입당 성가: 100    예물 준비 성가: 100(3), 210    성체 성가: 165, 163    파견 성가: 110(2)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1/29/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2/21/26)

## 제25회 가정 성화 주간 담화 (2025년 12월 28일 - 2026년 1월 3일)

### 생명 수호가 선물하는 참평화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성탄 축제와 함께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시작으로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정 성화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정 성화 주간은 일치와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 본연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찾고 마음을 다잡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참으로 하느님께서 한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며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31)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선물을 이어 가도록 남자와 여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이루는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단순한 외적 생활의 공간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가장 작은 교회 곧 ‘가정 교회’입니다. 이러한 가정 교회는 생명을 환대하고, 서로의 존엄을 지켜 주고 보호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하느님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교회도 이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모든 생명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는 살아갈 방법을 제각기 찾는 각자도생이 아닌 한마음으로 서로 돕는 동심협력을 지향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가 함께 수호해야 할 생명이 때때로 위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죽음의 문화’라 일컬어지는 생명을 거스르는 행위나 왜곡된 가치관으로 인간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이 위협받습니다. 그 결과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 생명이 침범받고 파괴되기까지 하며, 우리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죽음의 문화에 휩쓸리며 어느 곁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낙태 정당화의 흐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문화와 법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태아의 생명이 더욱 취약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낙태의 전면 허용과 약물 오용에 따른 위험의 신호들을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법적, 사회적, 개인적 이유도, 무고한 생명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행위는 결코 정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떠한 법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릇된 생명관에 맞서, 신앙 안에서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한결같이 외치며, 생명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 내야 합니다.

특별히 법과 제도는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가장 약한 이를 그 누구보다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태아는 우리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하는 약자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관한 기준이 완화될 때 사회 전체의 생명 문화 또한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저마다의 사정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낙태를 고민하는 이

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가 담긴 예수님의 눈길로 그들이 받은 상처와 위기에 온전히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신뢰와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공감하며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믿음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곧 판단하기에 앞서 함께 아파하고, 취약함을 돌보며, 동행하고자 합니다.

생명 수호에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잉태된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임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이며, 보호는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 수호의 막중한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참평화를 선물로 받습니다. 하느님께서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참행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도 ‘생명 수호 순례’의 여정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주님 성탄의 신비 안에서 거룩함의 은총으로 생명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위원장 문 창 우 주교